

When underground meets lifestyle

G HA

[지:하]

슬기로운 아랫동네 이야기

VOL. 13 JULY 2020

C O N T E N T S



이번 매거진 G:HA[지:하] 13호에서는 다양한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일상을 들여다 봄으로써 그들만의 특별하고 소박한 가치에 대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G:HA

MEDIA INFORMATION

매체명	매거진 G:HA [지:하] 13호
발행처	서울시설공단
발행인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발행일	2020년 7월 16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일반문의	02-2290-7287
취재&디자인	(주)다빈치커뮤니케이션
편집문의	02-815-6245

서울 지하도상가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sisul.or.kr) 또는 네이버 검색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ver Story

01 슬기로운 아랫동네 이야기

✧ 기획특집:슬기로운 집콕생활

04 한글에 스타일을 입히다
[을지로지하도상가 I 림스굿즈]

06 돌에 그려낸 변하지 않는 마음
[시청광장지하도상가 I 돌愛그림]

08 조화, 변함없는 아름다움
[마전교지하도상가 I 금잔듸]



✧ 열정:손길

11 나에게 맞는 '쌀'을 고르는 재미
[시청광장지하도상가 I 동수상회]

12 디저트 장인이 선사하는 달콤한 타르트
[을지로지하도상가 I 디저트스토리]

13 매일 아침 날아드는 싱그러움
[을지로지하도상가 I 액츠샐러드]

✧ 일상:변화

14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찾은 세 가지 즐거움

16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멋집맛집
[곰베, 제이스토리, 완두콩, 동화, 청춘수제강정]



✧ 득템:만족

20 내 지갑과 내 마음에 쏙 드는 G:HA 쇼핑! 집 가는 길에 득템 완료! [특가상품]
[종오지하도상가 I 같은생각]
[종로4가지하도상가 I 캣냥닷컴]
[종로4가지하도상가 I 삼보라사]
[남대문로지하도상가 I 양말나라]

✧ 만남:정성

22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넥타이
[소공지하도상가 I ROME]

✧ 소식:문화

25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전시 '도시의 풍경,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다'

매거진 G:HA[지:하] 13호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QR코드 확인]



슬기로운 아랫동네 이야기

이번 매거진 G:HA [지:하] 13호에서는
'슬기로움'을 주제로
지하도상가의 일상을 만나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아랫동네로 갑니다. 쾌적한 온도와 따스한 조명, 갖가지 물건을 갖춘 상점들이 더위로 지쳐 있던 심신을 살려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슬기는 더욱 빛납니다. 이번 호에서는 남다른 시각과 스타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하도상가의 내일을 슬기롭게 일구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만족을 찾는 소비자들을 꾸준히 연구합니다. 또한 언택트(untact) 라이프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남다른 방식을 시도합니다. 겉멋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고 뚝심 있게 자기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일상에 새로운 가능성이 되기를,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슬기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지하게 바래봅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Smart G:HA 속으로

지극히 익숙했던 것이
어느 순간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선과 독특한 감성, 작은 손길만으로도
평범함은 특별함이라는 새 옷을 입는다.
매일 보는 한글, 길가에 널린 돌, 흔한 조화도 마찬가지다.

한글 캘리그라피 굿즈를 만날 수 있는 '림스굿즈'
자연석으로 나만의 예술품을 만들어주는 '돌愛그림'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피어 있는 '금잔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싶거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하고 싶을 때, 지하도상가에 방문해보자.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다.
스마트한 집콕 생활! G:HA와 함께 신나게 즐겨보자.

을지로지하도상가

림스굿즈

한글에 스타일을 입히다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자인 한글.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림스굿즈는 한글이 지닌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픈 마음에서 시작됐다. 점포 내부에는 한글 캘리그라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서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한글의 세계에 푹 빠질 것이다.


01


02


03

림스굿즈 임정수 작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 131(을지로3구역) 을지로지하도상가 371호
02-353-3880 / 네이버밴드: 림스캘리그라피

Tips

캘리그라피 이미지 다운로드

네이버 블로그
[임정수디자인 또는 손글씨담긴이야기 : blog.naver.com/limsoo199]에서 캘리그라피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만의 제품 제작

림스굿즈에서 원하는 글귀의 제품을 고를 수 있고, 림스굿즈 네이버 밴드나 전화를 이용해 문의하면 택배나 우편으로도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01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연필과 연필꽂이
02 다양한 캘리그라피 굿즈
03 다채로운 문구를 넣은 머그컵

제품으로 만나는 캘리그라피

림스굿즈는 캘리그라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액자, 옷, 머그컵, 달력, 부채, 연필, 엽서부터 최근에는 마스크 보관함까지 캘리그라피를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단순히 글자를 아름답게 꾸며 소품에 새겨 넣는 것을 넘어, 그래픽 기법이나 LED 조명을 활용하기도 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에 글씨를 얹은 포토 캘리그라피로 만들기도 한다. 림스굿즈에서는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디아섹(diasec:사진을 아크릴과 알루미늄 판넬사이에 넣고 압축하여 코팅하는 방식) 액자 제작도 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인문학

임정수 작가의 문하생들은 캘리그라피를 가리켜 '사람을 배우는 인문학'이라고 표현한다. 글씨로 인해 공감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문하생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는 시간도 임정수 작가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글귀를 공개하는 월요일이다. 이를 통해 글귀에 담긴 의미와 캘리그라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그라피는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운 글씨에 머물지 않고 복합적인 예술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성을 진심으로 건네다

손을 활용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래서 결혼, 개업, 승진 등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글귀를 선물하곤 한다.
진심을 담은 한글 캘리그라피는 어느 공간, 어느 순간에도 당신의 진심을 전해줄 것이다. 기성품인 스탠드나 도자기 등에 원하는 캘리그라피를 새길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청광장지하도상가

돌愛그림

돌에 그려낸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곤 한다. 장영우 작가 역시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나누고픈 마음에서 돌愛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마음 때문일까. 그의 손길을 거치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못난 자연석이 생명을 품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 함께 숨을 쉬는 기적을 만난다.



01



02


03

01 돌에 그린 인테리어 소품
02 돌愛그림 캘리그라피
03 매장 전경

돌에 그려진 초상화의 의미

돌愛그림은 말 그대로 돌에 그려낸 사랑을 뜻한다. 장영우 작가가 돌에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돌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묵묵함과 관련이 깊다. "돌은 몇 천년 동안 세월의 풍파를 이기고 지속적으로 내려온 자연의 결과물입니다. 즉 쉽게 부서지거나 훼손되지 않죠."
그는 이러한 돌의 특성을 살려 초상화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추억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돌의 상징성과 잘 맞물렸다.

애정을 갖고 바라본 돌

수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돌의 형태나 문양이 특이해서 눈에 띄어야 한다. 하지만 임진강의 돌들은 평평하다는 특징 때문에 담벼락과 같은 건축자재용으로 쓰일 뿐 가치는 없었다. 장영우 작가는 이러한 돌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는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돌에 초상화를 그리는 그만의 독특한 화법이 태어났다. 그리고 쓸모없이 여겨졌던 돌들은 장 작가의 손을 거쳐 어느 돌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재탄생했다.

돌의 느낌을 살려 그리다

장영우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돌의 장점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돌의 형태와 색을 살려야 살아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장 작가는 돌을 구하는 작업부터 돌과 어울리는 받침대, 나무상자 등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작은 터치가 더해져 완성도 높은 예술품으로 태어나는 돌들. 장영우 작가는 못난 돌을 이처럼 멋진 예술품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다.

돌愛그림 장영우 작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 새특3-1 시티스타몰(시청광장지하상가)
02-2263-6504 김미애 실장 / www.estoneart.com

Tips

이렇게 보관하세요!

태양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빛이 바래질 수 있으니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돌愛그림 만들기

1. 얼굴 중심의 사진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한다.
2. 돌을 고른다.
3. 작업기간 후 찾아가거나 배달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마전교지하도상가

금잔듸

조화, 변함없는 아름다움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머무는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조화'는 활용도 높은 인테리어 아이템이다.
여러 종류의 조화를 활용해 꽃꽂이, 갈란드, 센터피스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다. 또 화분 형태의 조화는 갖다 놓기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살아난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아름다운 조화로 우리 집을 새롭게 꾸며 보면 어떨까.


01


02


03


04

01 조화 화분
02 조화로 만든 풍풍과 부들
03 리스 등 장식품
04 화사한 코르사주

금잔듸 이영옥 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398 마전교지하도상가 5호
02-2272-6906

Tips

조화를 색다르게 만드는 방법

나만의 갈란드 만들기

갈란드는 꽃과 여러가지 장식들을 길게 엮어서 만든 장식품의 일종. 지지대를 만들어 철사나 글루건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주면 포인트 인테리어에 탁월하다. 계절에 맞는 소품을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

와인병과 어울리는 센터피스

테이블 장식물을 뜻하는 센터피스는 풍성한 디너 테이블을 만들때 쓰면 좋다. 다 먹고 난 와인병의 라벨지를 깨끗하게 떼어낸 후 조화 한 다발을 꽂아두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시들지 않는 가치, 조화

조화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언제나 변함없는 꽃'이라는 점이다. 조화의 수명은 최소 5~6개월로, 일 년에 두어 번만 갈아 끼워주면 평생의 꽃으로 살아남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금잔듸에서는 집의 특색이나 분위기에 맞는 꽃과 소품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 조화는 박스에 잘 보관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 재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화관과 꽃다발은 5,000원대부터, 코르사주는 2,000원대, 넝쿨은 한 줄에 1만원으로 집안 또는 원하는 곳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패션 아이템, 코르사주

금잔듸는 15년 전, 생각지 못하게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코르사주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의 가수, 무용수들 사이에서 코르사주를 달고 무대에 서는 것이 유행이었던 덕분. 금잔듸의 코르사주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 일본 예술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았다.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금잔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생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색감의 코르사주와 다양한 문양으로 만들어진 코르사주를 만날 수 있다.

다채롭게 활용되는 조화의 세계

최근에는 가정집 뿐 아니라 각종 매장에서도 조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무래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오랜 시간 생생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조화의 매력 덕분일 것이다.
금잔듸의 조화는 저렴하면서 아름다워 셀프 웨딩을 준비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조화부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 선물로도 제격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지폐휴지, 돈으로 만든 꽃다발, 용돈박스 등에 금잔듸의 조화를 사용하면 선물의 가치와 생동감이 올라갈 것이다.









직접 블랜딩이 가능한 쌀집 '동수상회'

1024층 페이스트리 타르트가 맛있는 '디저트스토리'

정기구독과 당일 택배발송이 가능한 '액츠샐러드'

아랫동네 맛있는 이야기

'무엇을 먹을까'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로 문화가 바뀌어가는 요즘이다.

한 끼를 먹더라도 맛과 영양을 갖춘 먹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맛, 품질, 가격,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서 맛까지 더해주는 지하도 상가의 특별한 점포를 소개한다.







나에게 맞는
'쌀'을 고르는 재미

동수상회

우리에게 밥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우리의 이야기이자 문화고, 역사다. 맛있는 밥을 한 상 받으면, 밥을 지어주시던 어머니, 같이 밥을 나누어 먹었던 식구들,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이 떠올라 밥 알 하나 하나에 그리움이 담긴다.

'동수상회'라는 투박하면서도 친근한 이름의 쌀가게가 을지로에 있다. 이 정겨운 쌀가게는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쌀의 품종들을 알리고, 건강하게 농사지은 우리 농작물들을 소개하고자 문을 열었다.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적은 '쌀'에 디자인을 입히고 지역의 농부들과 연계한 여러 쌀 품종을 들여와 쌀도 트렌디한 산업임을 알리고자 한다.

쌀도 종자마다 각각의 맛이 있다. 각 지역의 농부로부터 직접 받은 단일 품종의 고품질 쌀을 동수상회에서 직접 도정하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한다. 신선한 쌀을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한 덕분에 오랜 시간 좋은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1인 기준 하루치 양으로 포장 된 것도 있이서 매일 도정한 쌀을 신선하게 먹고 싶다면 퇴근길에 시청역을 오가며 커피 사듯 한 팩씩 구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화, 온라인(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3만원 이상 구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동수상회 추천 제품

삼광, 골든퀸 3호, 적미, 제주 검정보리 등 특색 있는 품종부터 제주노란참깨기름, 동수허니 등 프리미엄 특산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시청광장지하도상가 동수상회 이은화 대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지하 12(시티스타몰) 새특 4-2

02-318-0950 / www.dongsustore.modoo.at

열정:손길

디저트 장인이 선사하는
달콤한 타르트

디저트스토리

고소한 달걀과 진한 버터 내음이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이곳은 유럽의 어느 유명 베이커리가 아니다. 점심시간과 퇴근길 직장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 곳은 약 30년동안 베이커리에 종사한 윤도현 대표가 직접 연구해 개발한 타르트를 선보이는 '디저트스토리'다.

그가 개발한 메뉴에는 에그타르트, 치즈타르트, 브라우니타르트, 유자타르트 등이 있다. 일반적인 크로와상의 페이스트리가 27층인 점인 반면 디저트스토리의 타르트는 1024층으로 겹겹이 둘러 싸여있다. 덕분에 얇은 페이스트리가 입에 닿는 순간 바삭함을, 꾸덕꾸덕한 버터 속 풍부한 달걀은 고소하면서도 씹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유럽풍의 고급 디저트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꿈인 윤도현 대표는 단계적으로 디저트 종류를 늘려 다양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포루투갈의 에그타르트를 뛰어넘는 맛과 다양한 토핑으로 무장한 디저트스토리의 또 다른 스토리를 기대해본다.

먹다 남은 냉동 타르트는 에어프라이어에 170도 예열한 뒤 7분간 구워내면 매장에서 구워낸 그대로의 맛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차갑게 먹으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디저트스토리 추천 메뉴

에그타르트, 치즈타르트, 브라우니타르트
최근에는 유자타르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유자로 유명한 고흥 지역에서 직접 납품받은 유자로 만들었다.

을지로지하도상가 **디저트스토리 윤도현 대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 88 을지로지하도상가 을특 11호
070-4607-2761 / smartstore.naver.com/dessertstory

매일 아침
날아드는 싱그러움

액츠샐러드

액츠샐러드는 바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Grab & Go 콘셉트의 샐러드 전문점이다. 샐러드를 먹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릴 것 없이 원하는 제품을 골라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해 사무실로 가져갈 수 있어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뿐만 아니라 언택트 소비 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해 '샐러드 정기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정기배송 서비스와 달리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를 'ACTS EXPRESS ZONE'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배송비 없이 매일 매장에서 직접 샐러드를 배송한다.

문병민 대표는 "샐러드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택배로 배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배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건강하면서도 이용이 편리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대표 메뉴는 지중해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치킨 니수아즈 샐러드'와 가성비가 좋은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다. 이외에도 퀴노아 두부 머쉬룸 샐러드, 쉬림프 퀴노아 샐러드, 리코타 단호박 청포도 샐러드 등 5가지 메뉴와 7가지 드레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면 100원씩 적립돼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데 사용된다.





액츠샐러드 추천 메뉴

치킨 니수아즈 샐러드
프랑스 니스의 대표 샐러드에 치킨을 얹었다. 통마늘과 로즈마리로 마리네이드 한 로스트치킨과 감자, 토마토, 올리브를 남프랑스 니스지방 요리법으로 조리해 지중해의 담백함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액츠샐러드의 대표 가성비 메뉴.
올리브 오일에 구운 연어를 얹고, 귀리, 흑미 등을 듬뿍 담았다. 어니언 크림 드레싱과 함께하면 상큼한 식사로 안성맞춤.

액츠샐러드 정기구독 신청하기
식단정하기 | 원하는 메뉴와 일정을 지정
주문 / 결제 | www.actssalad.com에 접속하여 온라인 주문 접수
무료배송 | 매장에서 직접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매일 무료배송
배송시간 | 점심에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0시~11시 배송
유의사항 | 배송 지역은 을지로 이내로 제한

을지로지하도상가 **액츠샐러드 문병민 대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지하 88 을지로지하도상가 을특 1-3호
02-578-7800



강 남 터 미 널
지 하 도 상 가

세 가 지
즐 거 움

양쪽으로 쭉 뻗은 환한 길.
옷과 신발로 빼곡한 매장을 지나면 포근한 이불과 알록달록한 그릇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과 형형색색의 아이템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색다른 세상으로 안내한다. 한 시간만 돌아다녀도 눈이 즐겁고, 양손은 무거워 진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외국인이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쇼핑의 명소'로 추천하는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에서 특별한 세 가지 즐거움을 찾아 만끽해보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투몰
고객센터 : 02-535-8182 / www.gotomall.kr
영업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멋있고 맛있는 지하도상가!

맛집부터 액세사리, 의류, 인테리어, 공예소품까지! 내 맘에 쏙 드는 알짜배기 상점을 찾아 탐험해보자!



뛰어난 접근성, 편리한 교통!

지하철 3·7·9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버스노선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방문 가능!

www.gotomall.kr을 입력하기만 하면 끝! 우리집에서 바로 간편하게 만나는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멋있고·맛있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멋집맛집

멋집과 맛집이 가득한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쇼핑 명소이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만큼 한 번 발을 들이면 시간가는 줄 모르는 그 곳을 이제 온라인(www.gotomall.kr)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클릭 몇 번으로 두 손 가볍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가성비·가심비 '끝판왕' 5곳을 소개한다!

#카디건 #데일리룩 #패션꿀템



매일 입어도 늘 새로운 카디건의 매력
곰베

33년간 니트 제작 노하우를 만날 수 있는 곳 <곰베>.
디자인부터 제작, 납품까지…. 직접 운영하는 공장에서 고품질 실로 니트를 생산하는 니트 맛집이다. <곰베>가 추천하는 니트 아이템은 카디건. 한낮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체온을 유지시키는 카디건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라고. 저렴한 가격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장인의 손으로 짠 니트를 입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고투몰 D-005 **곰베 황애연 대표**
070-8849-6567





#청바지코디 #패션피플 #데님활용



나만의 스타일 청바지 사용법
제이스토리<J Story>

청바지를 정장처럼 입을 수 없을까?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할 순 없을까? 남들과 다른 청바지 패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제이스토리>에 문의하자. 코디부터 데님 활용법까지 다양한 꿀팁을 얻을 수 있다.
<제이스토리>가 추천하는 제품은 린넨 자켓과 청바지의 믹스매치!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줄 청바지를 <제이스토리>에서는 1만 5,000원에서 1만 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고투몰 A-098 **제이스토리<J Story> 나정용 대표**
02-537-0661





#인테리어소품 #공간연출 #홈테리어



숨겨진 내 취향을 찾아서
완두콩

홈데코레이션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완두콩>에 들러보자.
주방부터 거실, 베란다까지 공간별로 어울릴만한 인테리어 소품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
작고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웅장한 조각상, 동화같은 색감의 주방타월, 고풍스런 레이스까지 집안 분위기를 손쉽게 바꿔주는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 1만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집안 표정을 바꾸고 싶다면 앙증맞은 미니어처 소품은 어떨까?

고투몰 C-111 **완두콩 박인숙 대표**
02-593-4327





#큐빅소품 #아기자기 #핵인싸템



반짝 반짝 내 손안의 별
핸드메이드 큐빅공예

동화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그립톡(griptok), 체인, 가방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이 <동화>의 손길을 거치면 특별하고 세련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다.

핸드메이드 큐빅 공예점 <동화>. 그곳에서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손끝으로 정교하게 한 알 한 알 큐빅을 달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품을 탄생시킨다. 단골 고객이 유독 많은 <동화>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큐빅을 달고 싶은 욕구가 무럭무럭 샘솟는다. 큐빅이 떨어져도 걱정 말자. 언제든 A/S를 보장한다.

고투몰 C-081-2 **동화 김현희 대표**





#건강한강정 #달콤고소 #3+1이벤트진행중



부드럽고 촉촉한
웰빙 강정

청춘수제강정

설탕을 넣지 않고 조청, 물엿, 토종꿀로 만들어낸 부드럽고 촉촉한 웰빙 강정을 맛볼 수 있는 곳. 광장시장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네 전통 강정을 현대식으로 재탄생시켰다.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호두크랜베리 강정(1만 5,000원)은 단연 베스트제품. 건강을 강조한 흑임자 강정(1만원)은 어르신들에게 인기다. 명절선물, 폐백, 이바지, 답례품 등으로도 안성맞춤. 전국 어디서나 택배 주문이 가능하다.

고투몰 T-010 **청춘수제강정 윤성식 대표**





INTERVIEW



나정용
고투몰 관리운영이사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권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새로워진다. 이 특별한 시도를 준비해온 나정용 고투몰 관리운영이사를 만나보았다.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트렌드를 앞선 다양한 상품군,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쇼핑의 메카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된 편리한 접근성과 주변의 깨끗한 부대시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쇼핑몰 '고투몰'을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고속터미널과 연계된 지하도상가의 특성상 먼 지역에서 오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들이 쇼핑을 한 뒤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먼저 쇼핑을 한 후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더한 거지요.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보다 다양한 상품군을 갖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문 진정한 쇼핑 명소로 발판을 다질 것입니다. 특히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 거리를 조성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왕홍마케팅도 기획 중이며, 해외배송서비스(오프라인 및 온라인)와 홈페이지 다국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내 지갑과 내 마음에 쏙 드는 G:HA 쇼핑!

집 가는 길에 득템 완료! [특가상품을 소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
단돈 만원으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살 수 있다.
원석을 사용한 화려한 헤어핀, 고양이 콘셉트의 소품, 양복원단부터 양말까지 가성비·가심비를 만족할 물건들을 소개한다.

머리에서 피어난 한 송이 우아한 꽃

같은생각

<같은생각>을 찾아가면 효율적이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의 뒤꽂이, 빗핀, 비녀 같은 헤어 장신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핸드메이드로 만든 은 귀걸이, 직접 각인해주는 미아방지용 아기 은팔찌 또한 잘 나가는 아이템이다.

같은생각 한다운 대표
종오지하도상가 바6호
02-3672-5510



뒤꽂이, 빗핀
1만원~3만원대
(원석사용에 따라 금액 상이)



은 귀걸이
1만원~2만원대
(원석사용에 따라 금액 상이)

인기제품 미아방지용 아기 은팔찌 4만원대(은 중량에 따라 금액 상이)

명품을 넘어서는 42년 숙련된 손길

삼보라사

1978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금까지 맞춤양복의 품위를 지켜 온 곳이다. 바지와 와이셔츠를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 내 몸에 맞는 양복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보면 어떨까. 원단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패션 전공학생이라면 방문은 필수.

삼보라사 박명호 대표
종로4가지하도상가 1호
02-2273-4513



양복 원단
1만원



맞춤 와이셔츠
3만 5,000원

추천제품 맞춤바지 5만원대 (원단별 금액 상이)



3중거즈 바디타월
1만 6,000원
(면100%)



3중거즈 핸드타월(3장)
1만원
(면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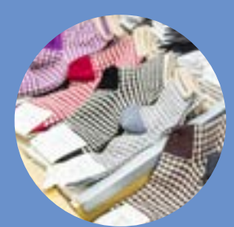
인기제품 고양이얼굴 동전지갑 3,600원

고양이와 사람 모두 행복한 공간

캣냥닷컴

특이하면서 다양한 고양이 콘셉트 소품으로 고양이 마니아와 키덜트(kidult)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캣냥닷컴.
귀엽고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 일부를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착한 매장이기도 하다. 제품을 구입하면 자체 제작한 고양이 스티커와 머리 끈을 증정한다.

캣냥닷컴 외계인집사(대표)
종로4가지하도상가 98~99호
0507-1408-9610 / 인스타그램 @catnyangdotcom



무압박 양말
1,500원



발가락양말
1,000~3,000원

만원의행복 덧신 7개 / 1겹 면 슬리퍼 7개 / 2겹 면 슬리퍼 4개

발끝에서 느끼는 1만원의 예술

양말나라

양말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양말나라는 남녀노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기 스팟.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인 기본 덧신부터 무압박 양말, 캐릭터 발가락양말, 실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인 미끄러움 방지 양말 등 특별한 기능을 가진 양말까지 만날 수 있다.

양말나라 최영덕 대표
남대문로지하도상가 14 38호
02-775-1640

소공지하도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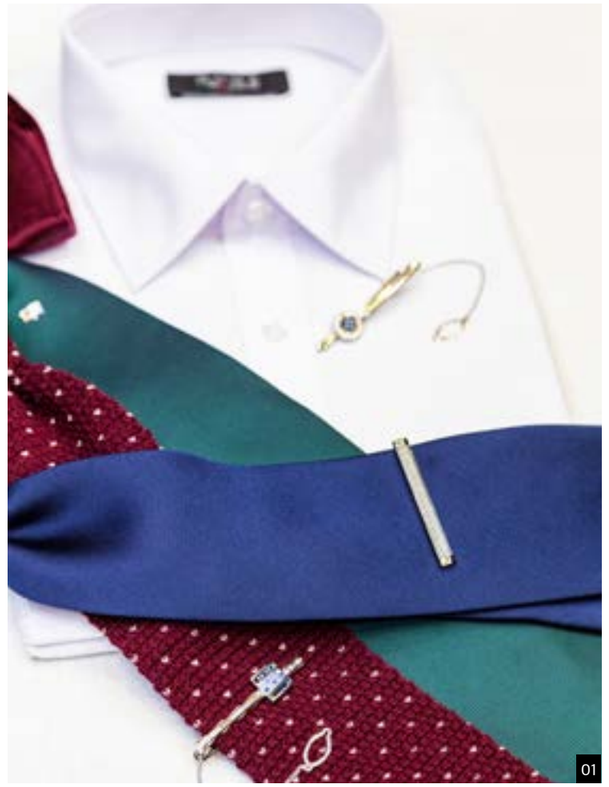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ROME[로마]

사회 첫 발 내딛는 젊은이들과
좋은 넥타이로 소통하는 것이 꿈

14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소공지하도상가를 지키고 있는 ROME. 오랜시간 꿋꿋하게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ROME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정직한 가격정책, 고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세심한 배려,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감각, 여기에 평생 A/S 서비스로 ROME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ROME은 계속 진화 중이다.

ROME 김석기 대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번지 소공지하도상가 63호
02-3789-1936

01 와이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02 매장 전경
03 여러 색상·무늬 넥타이 샘플
04 종류별 커프스 링크


01



02


03


04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ROME만의 전략

ROME 김석기 대표는 창업을 준비할 당시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도상가를 발로 뛰며 넥타이에 대해 직접 조사했다. 2006년 본격적으로 넥타이 전문점을 연 그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고 시중의 제품을 팔았다. 그러나 기존 유통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만의 넥타이를 만들기로 했다.
천 공장이 즐비한 진주로 간 김석기 대표는 공장과 계약을 체결해 기성 제품과 차별화된 ROME만의 넥타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세계적 동향을 조사하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 새로운 넥타이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김석기 대표는 더 좋은 품질과 맞춤 디자인, 저렴한 가격의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들의 사정을 고려한
저가 정책

ROME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2만원대로 저렴하다. 이는 어떤 청년의 딱한 사정에서 시작됐다. 넥타이를 사러온 청년이 돈이 없다며 4만원대 넥타이를 2만원만 받으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부탁했던 것.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구나' 생각한 김석기 대표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2만원대 넥타이를 선보였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12년째 가격을 유지해 온 것이다. 저가 정책을 시행한 초기 2~3년간 고생이 많았다. 그러다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점차 늘기 시작했다. 그렇게 ROME을 방문한 젊은 고객층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이어왔다. 비단 품질과 저렴한 가격뿐만이 아니다. 평생 A/S도 이 곳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사업 욕심 보다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을 뿐

입소문과 유명세를 타다보니 인터넷 사업, 프랜차이즈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김석기 대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 욕심보다는 넥타이를 사기위해 꾸준하게 ROME을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니 덩달아 젊어진다는 김석기 대표는 그것만으로 ROME을 운영하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ROME에는 특별한 넥타이 진열장이 마련되어 있다. 바로 젊은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넥타이 진열장이다. 넥타이를 소중히 매주는 젊은이들을 위해 언젠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에게 없는 제품 위주로 골라 선물로 건네고 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센스 있는 넥타이 활용법

◆ 스트라이프 타이



스트라이프 타이는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총칭한다. 동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을 주어 면접을 볼 때 사랑받는 넥타이이다.
젊은 세대가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 컬러포인트 타이



넥타이 색상만으로 슈트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 톤온톤(tone on tone)은 정장과 넥타이를 동일한 색상 계열로 맞추는 방법이다. 예복이나 격식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면, 정장과 넥타이 톤을 달리하면 컬러 조합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풍겨 패션 지수를 높일 수 있다.

◆ 니트 타이



니트는 겨울용이라고 단정짓지 말자! 니트 종류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ROME의 니트 타이는 실크로 만들어져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느슨하게 목에 두르듯 살짝 매주면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패션이 완성된다.

◆ 원포인트 타이



원포인트 타이란 무늬가 없는 넥타이에 포인트 자수가 들어간 아이템을 말한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선물받는 사람의 별자리 또는 띠별 동물모양의 자수가 들어간 넥타이를 선택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센스 만점 선물이 될 것이다.

ROME에서는 넥타이도 비대면 주문 가능!

ROME 전화로 상담한다.
(필요한 종류, 수량 등)

→

ROME에서 몇가지 넥타이 후보를
문자로 추천해준다.

→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선택하면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아랫동네에서 만나는 반전매력 문화공간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도시의 풍경,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다' 전시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오는 8월 14일까지 '도시의 풍경,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다' 전시를 진행한다. 아뜨리애 갤러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지난 2014년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한 연면적 230㎡ 규모의 전시공간이다.

이번 전시에선 4명의 청년작가들이 바라본 일상 속 도시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바쁘고 삭막한 도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낸다.

대표적으로 정연희 작가는 '도시와 자연'이라는 콘셉트로 한강, 세빛섬, DDP 등을, 서선정 작가는 '서울의 변해가는 동네 풍경'이라는 콘셉트로 '서울타워', '명동' 등을 선보인다.

임미나 작가는 '도시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 집중해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이경현 작가는 서울의 일상 풍경 속 군중의 모습을 다뤘다.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도 도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


2


3


4

01 정연희 작가, 유(流), 순간의 만남, 206cmx119cm, 한지에 모시콜라주, 2017
02 서선정 작가, 서울타워 후암동, 20x28cm, 드로잉, 2019
03 이경현 작가, Swimming pool, 60X72cm, acrylic on canvas, 2018
04 임미나 작가, Desire of the city, 112.1X162.2cm, enamel&hologram, 2019

Magazine G:HA [지:하]

G:HA[지:하]는 서울 지하도상가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Good:G) 상품, 즐거운(Haha:HA) 경험을 발굴하여 새로운 쇼핑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매거진입니다.